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12월 22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빅테크, 주가는 잠시 쉬었지만 실적 전망 상향은 지속 중. 미국 반도체 및 기술하드웨어(빅테크 코어 업종), 실적 상향 가속도 재차 상승. 그 밖에 금속광물, 자동차부품, 자동차, 전기장비 등 실적 상향 지속. 현재는 단순한 AI 기대를 넘어, 실제로 전력을 더 쓰고(GE버노바), 메모리를 더 팔며(마이크론), AI로 광고 효율을 내는(앱러빈)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향, 특히 2026년은 AI가 인프라 설치를 넘어 서비스 침투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해당 종목들의 이익 체력이 강화되는 구간

마이크론: HBM4 양산 시점 확정(26년 2분기)과 2026년 물량·가격 협상 완료, 데이터센터향 메모리 수요가 예상을 상회

브로드컴: 맞춤형 AI ASIC과 고속 네트워킹 장비 수요가 폭발하며 비반도체 부문(VMware 시너지)과 함께 실적을 견인

AMD: 'MI325X' 등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서버용 CPU 시장에서의 견고한 성장이 상향 근거

팔란티어: 기업용 AI 플랫폼(AIP)의 상업적 도입이 가속화되며 분기 매출 10억 달러 시대를 열었고,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상향 조정

인텔: 파운드리 분사 및 구조조정 효과와 차세대 공정(18A)의 가시화로 최악을 지나 2026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반영

GE버노바: 가스터빈 수주 잔고가 2028년까지 꽉 찼으며, 2026년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5~20% 상향 발표하며 리레이팅

지멘스 에너지: 전력망 사업부의 폭발적 성장과 풍력 부문(가메사)의 손실 축소로 2026년 순이익 전망치가 대폭 상향

큐민스: 데이터센터 비상 발전기 수요와 친환경 엔진 전환이 실적을 뒷받침

프리포트 맥모란: AI 인프라와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구리' 가격 상승 및 생산량 확대가 실적 상향의 핵심

앱러빈: AI 기반 광고 엔진 'AXON 2.0'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모바일 광고 시장 점유율을 흡수, 2026년에도 20% 이상의 고성장이 예고

쇼피파이: 물류 사업 매각 후 가벼워진 몸집과 AI를 통한 가맹점 효율화, 연말 쇼핑 시즌의 견조한 수요가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

스포티파이: 요금제 인상 성공과 광고 수익 비중 확대, AI 큐레이션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마진율 개선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반도체, 금속/광물,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장비, 소비자금융, 모기지투자, 기술하드웨어, 투자은행 등. **하향 업종**은 종이제지, 해운, 가정용내구재, 에너지, 제약, 레저, 섬유의복, 철도도로, 복합유틸, 호텔레저 등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마이크론, 보잉, 지멘스에너지, 프로수스, 카바나, 프리포트맥모란, 브로드컴, GE버노바, 도요타, 팔란티어, 메이탄, 스포티파이, 코노코필립스, 알리바바, 쇼피파이, 일라이릴리, 엔비디아, 인텔, 앱러빈, 신타스(CINTAS), 액센츄어, AMD, 큐민스, 시티그룹, 디어 등

하향 주요 종목은 나이키, 소프트뱅크, 지멘스, 머크, 화이자, 유니레버, BP, 샤오미, 프로그레시브, 우버, 아람코, 노보노디스크, 트랜스다임, 엘레반스헬스, 홈디포, 에퀴닉스, 미디어텍, 버라이즌, 로우스, 엔브릿지, JP모건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4Q25F OP는 79.4조원 (1W +0.3%, 1M +1.8%, YoY +66.0%), 추정치 재차 상향. **2026E OP**는 426조원 (1W +0.7%, 1M +3.8%). 4Q25F 및 2026F 실적 강한 상향 조정, 사상 최고치 이익 전망 지속. **4Q25F OP 상향 업종**은 조선, 방산, 상사, 반도체, 기술하드웨어. **하향 업종**은 항공, 정유, 기계, 제약바이오, 화학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4Q25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SK스퀘어, 고려아연, HMM,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상향.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포스코퓨처엠, 미래에셋증권, LG 하향

4Q25F OP 상향 주요 종목은 SK, SK스퀘어, LG이노텍,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산일전기, SK이노베이션, 일진전기, HMM, 대한전선, SK하이닉스, ISC, 삼성전기, 한솔케미칼, HPSP, iM금융지주, 롯데쇼핑, HD현대중공업, SK가스, 고려아연, CJ, 팬오션, 대웅제약, 넷마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신세계, 메리츠금융지주, HD현대, 농심, HD한국조선해양, LS, 삼성화재, S-Oil, 삼성E&A, 두산밥캣, 삼성물산, 엘앤에프, 미스토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카카오, 한미약품, 삼양식품, HD현대일렉트릭, POSCO홀딩스, 리노공업, 한화시스템, GS, 에이피알, 에코프로비엠, 에스엠, 현대로템

외국인은 코스피 중형주 매도 집중, 모든 스타일에 매도.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3.1조원, 코스닥 -5,7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건자재, 유통, 은행, 기술하드웨어, 2차전지. **순매도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철강, 방산, 건설, 기계

연기금은 중형주, 코스닥, 가치주에 선별적 매수 관찰.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230억원, 코스닥 +1,00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방산, 내구소비재, 호텔레저, 유통, 가전. **순매도 상위 업종**은 디스플레이, 2차전지, 기술하드웨어, 항공, 비철금속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및 실적발표)

12.22일(월)

미국 소비지출물가지수(10월) / -

23일(화)

미국 GDP, CB소비자신뢰지수(12월), 신규주택판매(9~11월) / -

24일(수)

미국(조기폐장)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 -

25일(목)

미국(휴장, 크리스마스) / -

26일(금)

- / -

Quant Comment

미국 빅테크 실적 전망치 오히려 상향폭 확대(반도체, 하드웨어, 전력, 소프트웨어 등)

한국 실적모멘텀 역시 상향폭 확대(반도체, 방산, 조선 등)

환율 상승 지속으로 지난주 외인 코스피 3조원 이상 순매도, 반도체 역시 매도

지난주 금요일 강한 위험선호 관찰, VIX -12%, SOX +3% 등

12월 계절성(북 클로징 등)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는 과정, 내년 증익 종목군 버텀피싱 시작해도 되는 시점